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제582호

지면안내

02

사회 스스로도 심각하다는 청년 문해력, 왜 그럴까?

03

기획 벗어나고 싶어도... '청년 수급자'라는 굴레

06

학술 혁거세 신화 뒤의 실세들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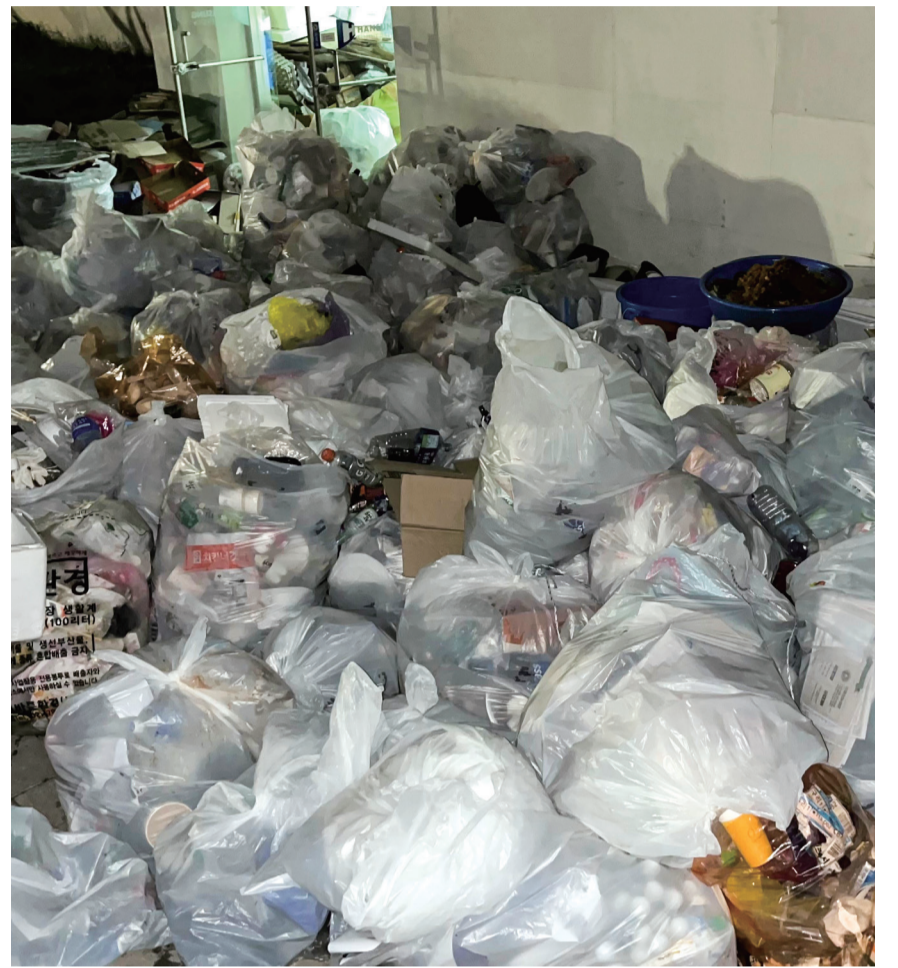
광고 제37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1일 오전 2시 50분경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가 산적한 잔디광장

대동제 그 후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1일 오전 2시 50분경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돼 진리관 1층 입구를 침범한 모습

홍보 포스터 부착 난무, 본부의 입장은?



▲28일 오후 8시 40분경 홍보 포스터가 무분별하게 부착된 상상관 1층

최근 학내 곳곳에 각종 홍보 포스터가 무분별하게 부착된 현상이 다수 발생했다. 홍보 포스터 숫자에 비해 교내의 게시 공간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 대학본부는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대동제 및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이기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홍보 포스터는 학생자치팀의 검인 후 지정된 게시 장소에 붙이게끔 규정되고 있다. 「학생칙칙」 제17조에 따르면 '교내·외에서 학생에게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게시 등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그 안을 학생처에 통보하고 게시 장소와 게시 기간을 지정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이를 어긴 포스터가 발견되면, 학생자치팀과 자산관리팀은 해당 포스터에

대한 퇴거 및 수거 조치를 진행한다. 쓰레기 문제와 벽보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태민(학생자치팀) 팀원은 "게시물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지 않으면 학교 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면서 "게시 장소가 아닌 일반 벽에 포스터를 붙이는 경우에는 페인트가 훼손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대동제 행사와 개교 50주년 기념행사가 마무리된 후 무분별하게 부착된 포스터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박 팀원은 "여러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경우에는 게시 장소에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을 감안해 행사가 많은 기간에는 강압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케이키친 한상' 개점

학교기업 레스토랑 '케이키친 한상'(이하 한상)이 지난 4일 문을 열었다. 레스토랑의 위치는 상상관 12층, 현재 운영되지 않는 학교 입점 레스토랑 '밀가옥'의 자리다. 한상은 학교기업으로서 미래플러스대학 호텔외식경영학과와 실습 공간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교내 구성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한다. 이번 레스토랑과 같은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를 실현함으로써 수익 창출 및 교육을 이어 나간다.

한상은 교내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폭을 넓히고자 설치됐다. 메뉴는 ▲한상 비빔밥 ▲육회 비빔밥 ▲연어 아보카도 덮밥 ▲비프 덮밥 ▲과일샐러드 ▲도시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약이 필수로 요구되는 '케이키친'과 '한상 패키지'도 마련됐다. 예

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케이키친 한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상은 월별로 새로운 메뉴들을 추가할 계획이다. 노관현(산학협력단) 단장은 "재개발로 학교 근처의 많은 식당이 사라져 교내 구성원이 원하는 음식을 먹기 쉽지 않았다"며, "음식을 선택해 먹을 수 있게끔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레스토랑은 10월 4일 오픈식 진행 후, 6일부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수용 인원은 58명이며, 한식 전체 메뉴는 포장 가능하다. 학기 중 평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의 경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단, 영업 종료 1시간 전에 주문이 마감된다. 방중 운영 시간은 미정인 상태다. 더불어, 브레이크 타임 등의 운영 시간과 관련한 사항은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노 단장은 "방중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토요일 영업은 미래플

러스대학 학생과 대학원생의 수업 시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호명은 '한성대학교 학교기업 레스토랑 상호명 공모전'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됐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한상은 '한'성대의 '상'상력 속에 차려진 '한'식 '상'차림을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이름이다. 이후 자문을 거치면서 해외로의 사업 확장을 고려해 한국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케이키친'을 추가했다.

노 단장은 "학교에 다니는 것에는 무엇보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잘 먹고 건강하게 다니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학생들이 한상에서 제공하는 건강한 음식을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며, "개인선 사항이 있다면 개설되는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gihun30@gmail.com

본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한성대학교 대학원에서 오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편입생을 모집한다. 해당 모집에서는 일반대학원(주간)과 특수대학원(야간) 모두를 모집하며, 학사사연계과정생은 선발하지 않는다.

이번 모집의 총인원은 510명 내외로, 신입생 약 403명, 편입생 약 107명이다. 신입생 지원은 2023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가능하며, 편입생은 타 대학원에서 해당 학위 과정을 한 학기 이상 수료한 자만이 지원 대상이다. 편입생 지원자는 본교 대학원 소속 교수 1인 이상의 추천서 역시 요구된다. 지원은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석·박사 학위 개설 학과가 모집계열별로 상이하며, 특수대학원은 석사 학위만을 취득할 수 있다. 선발은 ▲원서접수 ▲서류제출 ▲면접고사 ▲

합격자 발표 ▲등록금 납부 순으로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28일 17시에 마감되며, 서류제출은 31일 17시까지 가능하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접고사는 11월 19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에 예정돼 있으며, 등록금 납부는 12월 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한성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면학장학금이 지급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14일부터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태(대학원 교학팀) 팀원은 "대학원 진학은 전문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한성대학교 학부 졸업생이 본교의 대학원에 재학한다면 금전적 혜택 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스스로도 심각하다는 청년 문해력, 왜 그럴까?

일상생활에 영향 주는 문해력
뉴미디어 보편화가 저하 원인
듣기 우선되는 문화 정착돼야

최근 온라인에서는 '심심하다'는 말이 구설수에 올랐다. 한 카페가 SNS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공지문을 내자,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오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심심하다'는 단어는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한 해프닝이었다. 이 사건은 근래에 제기되던 청년층의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에 다시 한 번 불을 댕겼다. 정말 이러한 논란을 문해력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는 단순히 어휘력의 문제일 뿐 문해력으로 논점을 옮기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지영(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어휘력이 전적으로 문해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단어들이 문해력 측정의 척도가 될 만큼 필수적인 단어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문해력(文解力)은 무엇일까. 문해력은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과 다르다. 따라서 글자를 학습한 비문맹인이더라도,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나이가 문해력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생활 속에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령 복약 지도서를 읽고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기차표 할인 규정을 읽고 얼마의 요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내는 능력도 포괄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최근의 논란은 문해력과 전혀 무관할까. 복수의 전문가들은 어휘력 저하는 문해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현상을 마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다고 역설한다. 글이란 문법에 따라 나열된 단어의 결합체인데, 제일 기초가 되는 단어에 대한 무지는 필연적인 오독을 부른다는 것이다. 안미애(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글이 집이라면, 어휘는 집을 이루는 벽돌"이라며 "어휘력 저하가 문해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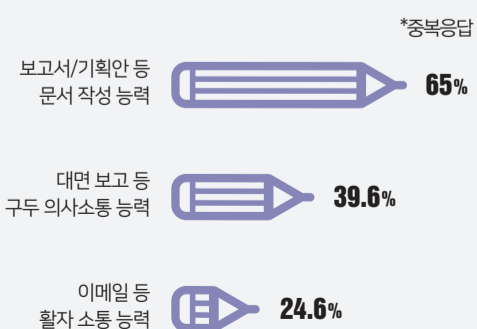
본지는 문해력 저하 논란에 대한 청년층 내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청년층 문해력 인식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청년층(만 19세~34세)이었으며, 응답자는 총 618명이다. 조사 결과 청년층은 대체로 자신이 속한 세대의 문해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나 주변의 사례 등으로 미뤄 봤을 때, 청년층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81.1%)'라는 응답이 '아니오(18.9%)'의 4배가 넘는 것이다.

직원 국어 능력 만족도 조사

직원 국어 능력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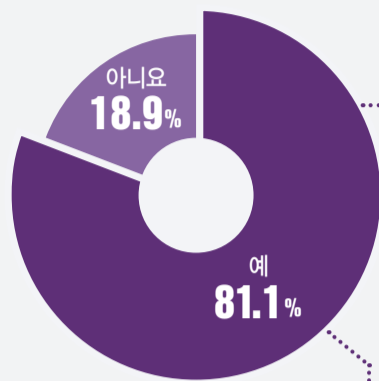
불만족스러운 업무 관련 국어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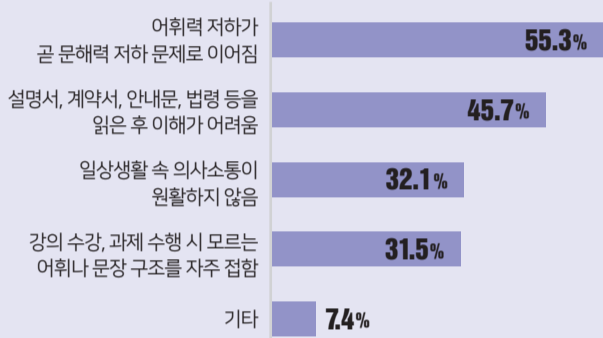
*대상 : 260개 기업
*자료 출처 : 사람들

청년층 문해력 인식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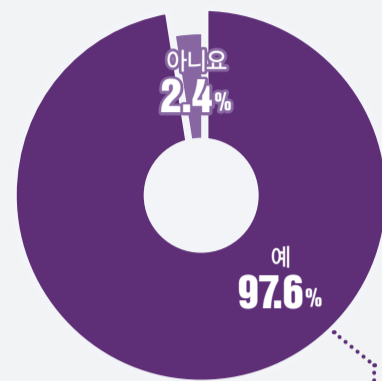
1. 본인이나 주변의 사례 등으로 미뤄 봤을 때, 청년층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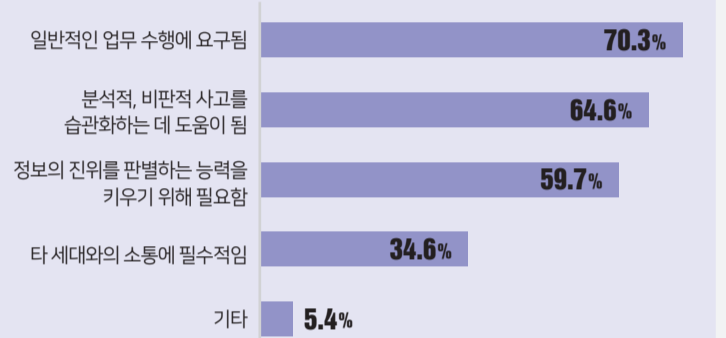
1-1. 어떠한 이유로 청년층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중복응답



1-2.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1. 어떠한 이유로 문해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중복응답



*본 설문은 표본은 전국의 청년층(만 19세 이상~34세 이하) 618명입니다.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청년층은 어휘력과 문해력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떠한 이유로 청년층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어휘력 저하가 곧 문해력 저하로 이어짐(55.3%)' 응답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또한 '설명서, 계약서, 안내문, 법령 등을 읽은 후 이해가 어려움(45.7%)', '일상생활 속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32.1%)'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청년이 이미 일상 속에서 글을 읽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 수강, 과제 수행 시 모르는 어휘나 문장 구조를 자주 접함(31.5%)' 답변도 있어, 강의실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박철우(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원장은 "요약이 돼 있지 않은 긴 글에 젊은 세대는 금방 지루함을 느낀다"며 "강의가 오랜 시간 진행되면 힘들어하는 것이 체감된다"고 전언했다.

청년층의 문해력 저하에 따른 심각성은 업무환경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문제임을 시사하는 통계도 존재한다. 사람들이 실시한 '직원 국어 능력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재직 중인 직원의 국어 능력에 대해 '불만족한다(83.8%)'는 응답은 '만족한다(16.2%)'는 응답을 5배 이상 앞질렀다. 특히 직원의 국어 능력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40대(75.3점)', '50대 이상(73점)', '30대(72.4점)', '20대(65.2점)'로, 20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업무에 관련된 불만족스러운 국어 능력은 '보고서/기획안 등 문서 작성 능력(65%)', '대면 보고 등 구두 의사소통 능력(39.6%)', '이메일 등 활자 소통 능력(24.6%)'이었다. 양진오(대구대학교 문화예술학부) 교수는 "청년 세대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된 글로 표현하는 일을 힘들어 하고, 적절한 어휘를 곧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청년층의 문해력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영상매체나 SNS와 같은 뉴미디어의 보편화를 문제 삼는 의견이 많다. 길이가 짧은 영상이나 사진, 짧은 글로 소통하는 SNS에 익숙해져 장문의 글을 읽는 행위를 힘들어한다는 지적이다. 당사자인 청년층도 뉴미디어의 사용이 습관화된 현상을 원인으로 가리킨다. '청년층 문해력 저하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뉴미디어가 보편화돼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부족함(94%)' 응답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뒤이어 '대학 교육을 포함해, 현행 공교육을 통해 문해력을 기르기 힘들(16.8%)', '서로 알려주는 소통의 문화가 부재함(16.4%)' 답변이 엇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미디어 환경이 다원화됨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찾기에 수월해진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원하는

정보에 과다 노출되고, 원하지 않는 정보에는 과소 노출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의 언어나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민지(경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원하는 정보에 대해 깊이 파고들 수는 있지만 주변의 다른 맥락을 전부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보여준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소통의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측도 있었다. 사회 전반에 처음 보는 어휘나 문장 구조 등을 접했을 때 이에 대해 알아보거나, 자신의 정보를 모르는 이에게 가르쳐주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타인과 소통하며 정보와 감정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해력이 향상된다고 전언한다. 장 교수는 "현재 청년 세대는 어떤 단어를 모를 경우에 이를 학습하기보다는 그저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청년층 대부분 역시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설문조사에서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97.6%)', '아니오(2.4%)' 응답이 도출돼, 압도적인 수의 청년이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떠한 이유로 문해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요구됨(70.3%)'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미디어가 보편화된 시대임에도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해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영상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시대에 도 책, 신문 등 활자로 이뤄진 글을 읽고 활용하는 능력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영상, 음악, 이미지를 많이 접하지만, 남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할 때는 말과 글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를 간략하게나마 문자로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분석적, 비판적 사고를 습관화하는 데 도움이 됨(64.6%)'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영석(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사회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함(59.7%)'이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실제로 새로운 매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문해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무엇이 진실된 정보인지 선별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

보를 고르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 문해력을 갖춰야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고, 비판적인 읽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매체 환경이 달라지면 그 매체에 대한 교육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판적 읽기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의 중등교육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문조사에서 '청년층 문해력 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말하기와 쓰기 중심으로의 국어 교육 개편(61.1%)'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타인의 생각을 접하는 읽기 행위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쓰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신 교수는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구축하는 일이 읽기 교육인데,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윤석진(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대학에서 글쓰기 교양 수업이 진행된다면 사실은 공교육 과정에서 본질에 맞지 않는 언어교육이 이뤄졌다는 증거"라며 "지속적으로 언어교육을 받았음에도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의 언어교육을 되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타인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회적 독서'(59.7%)'가 해결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독서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돼 왔지만, 최근에는 독서 동호회를 통해 책을 읽고 여러 사람과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 각광받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독서를 통해 타인과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세계관을 접하는 것이 성인이 스스로 문해력을 기르는 데에 도움 된다는 분석이다. 안 교수는 "홀로 하는 독서가 사회로 나아가는 문으로 가는 일이라면, 함께 하는 독서는 그 문을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세대 갈등의 양상으로 번지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대방의 의견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듣는 태도를 갖춘다면 자신과 다른 여러 생각에 대해 알아가며 문해력을 기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청년층도 '서로 알려주며 개선하는 소통 문화 확산(31.3%)' 응답을 남기며 이와 같은 해결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 교수는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듣기에서부터 나온다"며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등 답답 상황에서 천천히 생각하며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장현진 기자 glenntavel1081@gmail.com

비행 청년

- 비행(飛行)할 그날을 위해 -

새싹이 파랗게 돌아오는 봄철이라는 '청춘'. 안타깝지만 모든 청년이 그 말의 의미대로 젊음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에서 등한시되고 있는 소외 청년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외된 청년의 문제를 과연 개인의 문제, 비행(非行)으로만 다뤄야 할까.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조명해야 할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 소외 청년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飛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 속 소외된 청년들이 '비상'하기 위한 발판을 알아보자.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벗어나고 싶어도... '청년 수급자'라는 굴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층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부조(公共扶助)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구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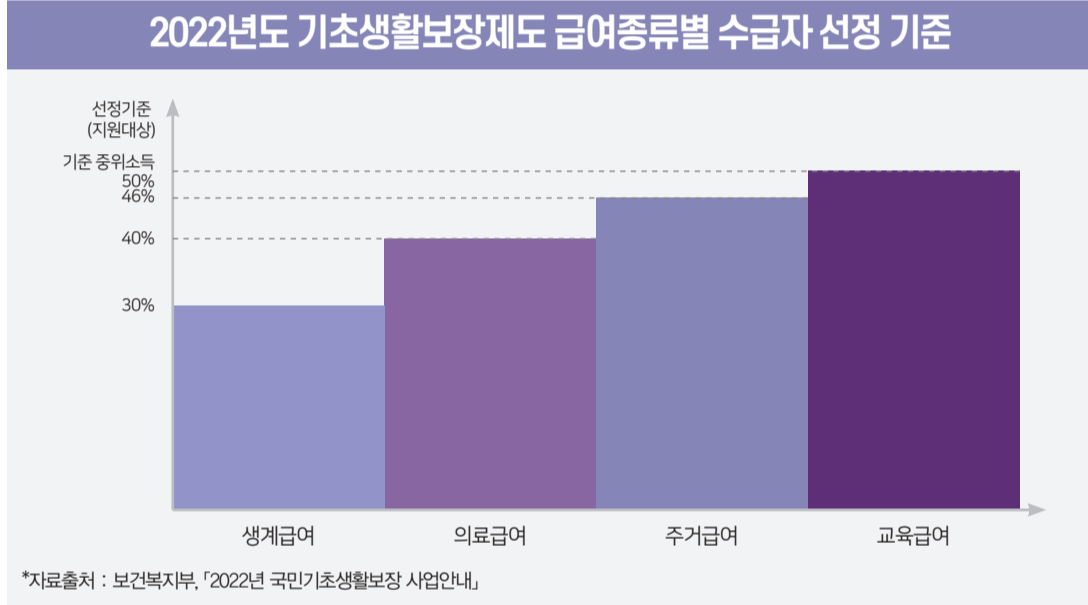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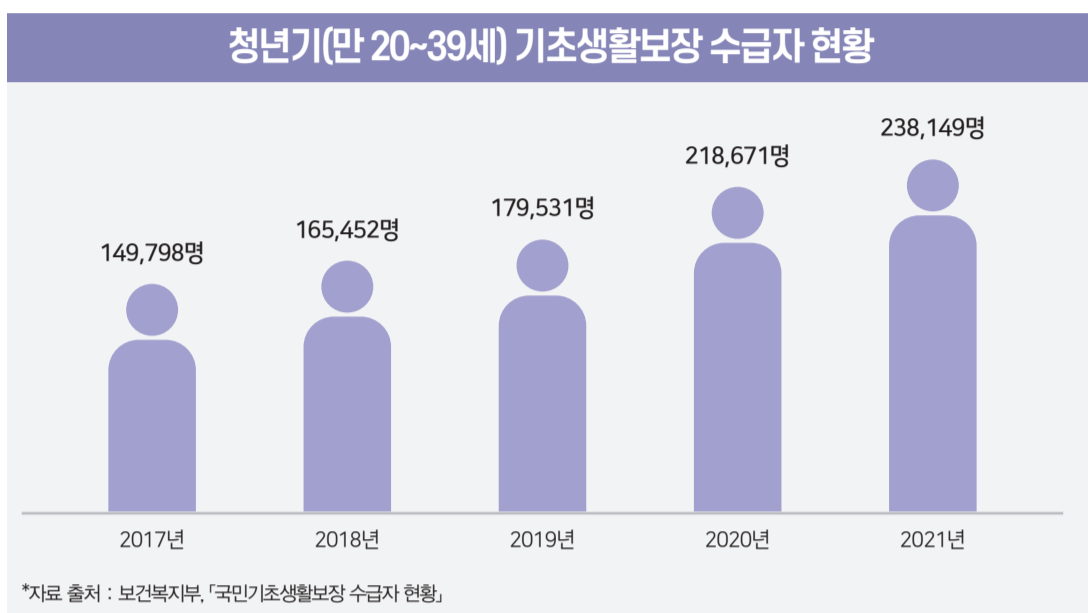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에 얼마만큼 크게 미달하는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평균 소득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이 중위소득에 당시 경기 추세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치다. 김승연(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빈곤에는 '상대적 박탈'이라는 개념도 포함돼 있다. 전체적인 소득이 올라가면 중위소득도 올라감으로써 상대적인 빈곤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치를 백분율로 나눠 수급권자의 소득이 몇 % 이하인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기준 ▲생계급여(30% 이하) ▲의료급여(40%) ▲주거급여(46%) ▲교육급여(50%)라는 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미달해야만 모든 급여를 수령했다. 하지만 개편 이후 상대적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급여를 다변화시켜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8%에 해당한다면 모든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반면 42%라면 주거·교육급여만 수령할 수 있지만 생계·의료급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약 158만 명에서 2021년 약 235만 명으로 상승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과거에는 실제 부양하지 않으나 고소득 자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수급자가 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청년 수급자들의 증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만 20~39세의 청년기 수급자들의 수는 2017년 149,798명에서 2021년 238,149명으로 무려 60%가량 상승했다. 문진영(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수급자가 증가한 원인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를 뽑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존재하고 청년의 경우 부동산 자가 소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기 어려웠다"며, "결국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생계급여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도 미달되는 소득일 만큼 엄격하다. 따라서 극빈한 생활을 하는 청년세대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가에서는 청년들을 비롯한 수급자들의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을 일정 공제해주고 있다. 소득을 측정하는 데 있어 일정금액 만큼은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만 24세 이하의 청년 및 대학생의 경우 소득의 40만 원을 정량으로 공제해주고, 이후 남은 소득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만 25세~64세의 경우에도 소득의 30%가 공제된다. 이어 자립준비청년과 사회복지요원, 상근예비역 등에게도 근로 및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급자 청년들이 소득 선정을 피해 사회의 어둠 속으로 떠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이 급여 선정 기준을 넘었을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 수급자들은 이른바 '쪼개기 알바'나 단기 알바를 하고 있다. 이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기초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충급여의 원칙이란 급여는 어디까지나 수급자가 생계활동을 하고도 미달한 분량을 '보충'해주는 것이라는 원칙이다. 즉, 수급자가 근로를 시작해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은 더 이상 '보충'을 해줄 필요가 없으니 지급되는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일을 하면 할수록 급여액이 줄어드니 아예 소득 산정에 걸리지 않거나

공제액만큼의 소득이 발생하는 '미나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만희(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공제율이 한정되면서 청년들이 소득을 스스로 공제하는 '자기 공제'로 몰리고 있다. 사회에서 의도하지 않게 부당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도 지적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1항 나목에 따르면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하나의 동일가구로 여긴다. 이 때문에 현재 30대 미혼 자녀의 경우 따로 살더라도 1인가구로 분리되지 않아 하나의 가구로 묶인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청년 수급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청년 수급자 본인은 탈수급의 의지가 있어도 같은 가구로 묶인 부모의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 봐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심지어 상술했듯이 이는 주거와 경제적 독립이 이뤄진 일부 청년에게도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몰래비트'를 하고, 결국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잔존하게 된다.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에는 청년들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의료급여가 대표적인데,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수급자로 남아있는 청년은 32,537명으로 전체 청년 수급자의 21.7%를 차지했다. 의료급여 등의 자격을 상실하면 즉시 가족 구성원에 의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수급자로 남아있는 것이다. 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오랫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던 청년이 가정 내 사정으로 인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던 사례를 봤다"고 술회했다.

개별가구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이를 수급권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실무 단계에서도 그냥 단일한 가구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정성철(빈곤사

회연대) 사무국장은 "30대 미만 미혼 청년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나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런 정보나 내용들을 모른다. 관련 절차가 어렵게 숨겨져 있고 경직되게 운영되는 행정의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년 수급자들을 위해 공제율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장동호(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급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업이 중요한데 수급 자격 유지 여부로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기에 소득 공제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상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충급여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자산 형성 프로그램의 기준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까다로운 자격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자 및 입금액 등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노인 가구는 이미 자산 형성의 단계를 끝났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청년에게 특화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기준을 조정해 보충급여의 원칙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청년 수급자가 개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기한 연령의 하향 등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도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문 교수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나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 모두를 개별가구로 보장할 시, 소득이 없는 많은 청년이 무분별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유 교수는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분리해서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청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벗어나는 일을 넘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수급기준을 겨우 넘겼을 뿐인데 수급자에서 벗어난 청년들이 줄어들어야 하며, 청년층이라는 특성에 알맞은 취업훈련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빈곤과 가정 내의 다른 문제로 인해서 교육이나 훈련 경험이 또래 집단보다 부족한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직 활동 지원으로 부족할 수 있기에 밀착해서 사례 관리를 진행해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이뤄지는 자활 사업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의 근로유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사업에 참여한 수급자는 근로소득을 받으면서도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이 사업에 청년들의 경험과 스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자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국장은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일자리와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되지 않도록 보편적인 제도를 확대해야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청년이 해당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조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야 한다. 다른 제도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갈 일이 없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안전망도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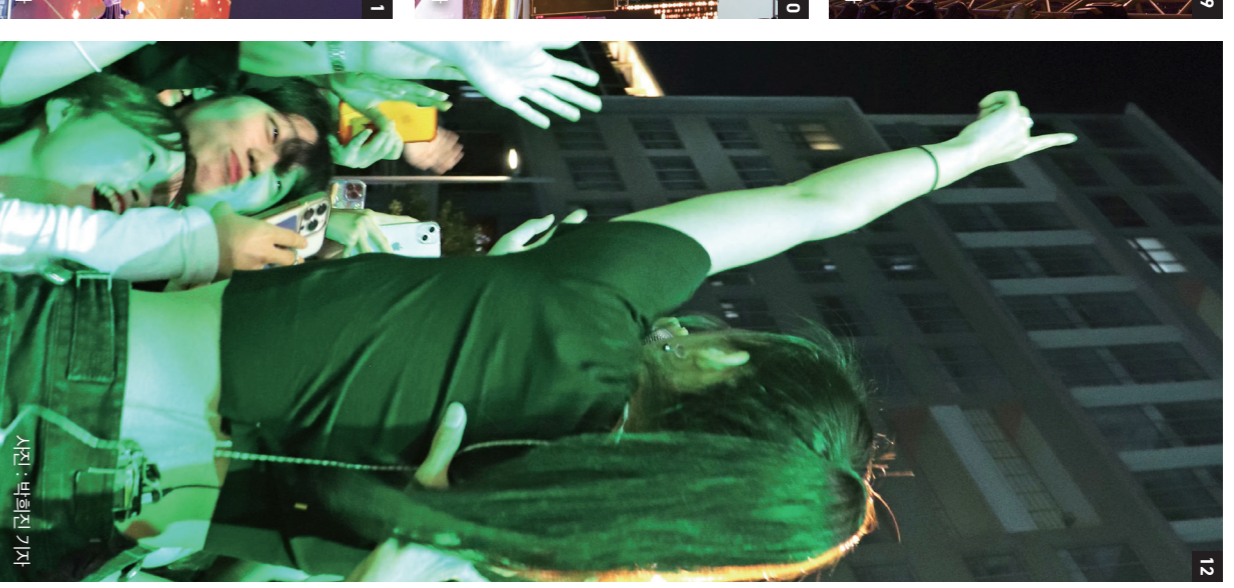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청년 수급자들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성장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청년 수급자들은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투자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청년 수급자 대부분은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과 상관없이 집안의 형편으로 수급자가 됐다. 따라서 자신이 독립적인 생계를 꾸릴 때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질 잠재성이 큰 집단"이라며, "생계급여 등 급여 지급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노동시장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제 대상 수급(권)자	근로대상 소득	공제율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혹은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공제,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만 25세 이상 64세 수급(권)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아동사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근로·사업소득	50만 원 공제,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는 소득 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새로운 밤가림



모두가 한데 어울려 동거음악했던 3일간의 대동체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의 여정을 뒤로하고 마침표를 찍었다. 캠퍼스 내 위치한 푸드트럭과 이벤트 부스 앞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잔디광장에 설치된 야외무대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오후부터 진행된 아워무대는 다채로운 학생들의 무대가 이어졌으며, 영희제 상영과 '낙산가요제' 등도 진행됐다. 내리퍼런 햇빛이 사라지고 연애인 축하공연이 다가오며, 분위기는 점점 고조됐다. 2일 차에는 기승을 올리는 재팬과 모두를 들뜨이게 만든 '8의 공연이 구성됐으며, 3일 차에는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그레이'와 감미로운 음색의 소유자 '비바'의 무대가 펼쳐졌다. 공연이 시작되자 잔디광장은 빈틈없이 메워졌고, 학생은 점차 커져 캠퍼스를 울렸다. 크로니 학번에게는 새로운, 이외의 구성원에게는 반가움을 가져다준 그 현장으로 떠나보자.

김지윤 기자 jjyuh@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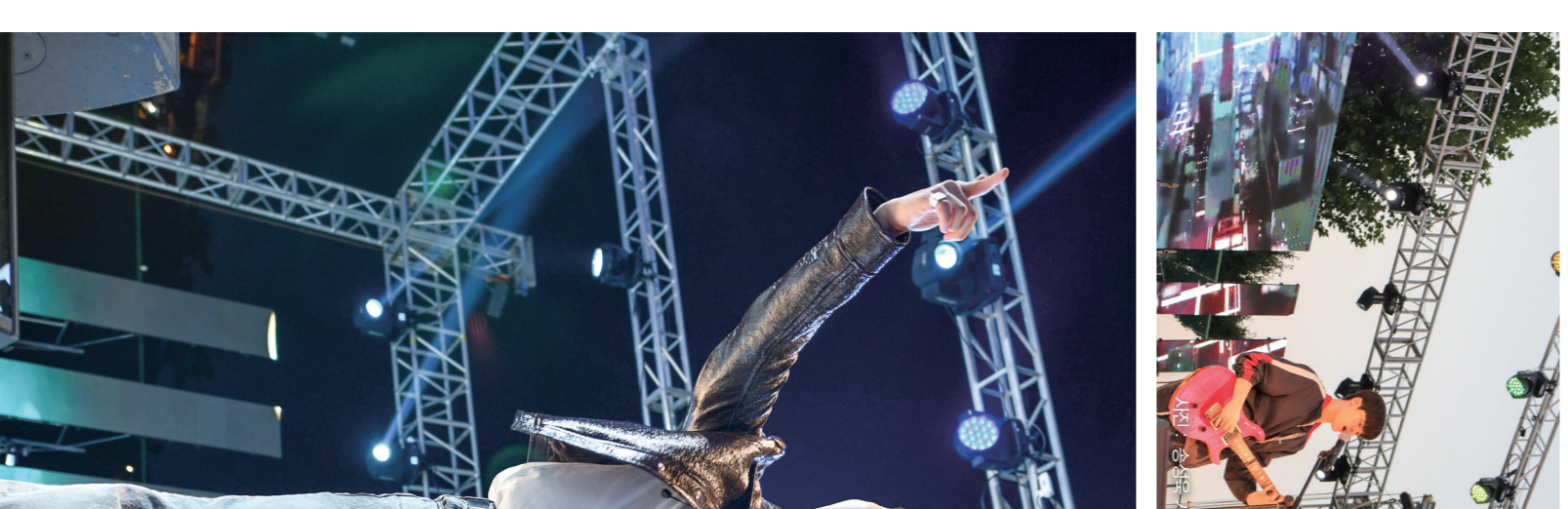


- 1 '8의 공연에 잔디광장이 들썩였다.
- 2 가수 '영도현'이 기타를 치며 노래했다.
- 3 가수 '재팬'이 열창하고 있다.
- 4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레코레이션을 즐기는 중이다.
- 5 학우가 하랑 부스에서 아이스크림을 받고 있다.
- 6 가수 '비바'가 학생들의 환영을 즐기고 있다.
- 7 축제 분위기에 들어오른 학생들이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 8 경영학부 부스에서 대배달삼각구를 만드는 중이다.

3년 만에 열린 대동제,
또다금 볼태운 3일
새로웠다. 축제는 처음이니
반가웠다. 시간이 흘렀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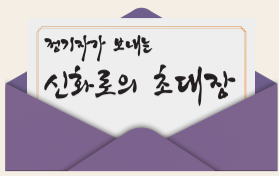


동거음악



- 9 레코딩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 10 낙산가요제의 자작곡 부문 대상 수상자 한정민(사회과회 4) 학생이 노래를 불렀다.
- 11 김동현(국문 4) 학생이 통기타를 치며 자작곡인 '부정'이 공정을 부르고 있다.
- 12 무대에서 내려와 노래를 부르는 '비바'에 학생들이 열광했다.
- 13 낙산가요제에서 'DOPE' 'I mean'이 자작곡을 선보였다.
- 14 밴드 동아리 'NOOD'가 낙산가요제 축하공연 중이다.
- 15 가수 '그레이'가 관객들의 환영에 흥분하고 있다.





혁거세 신화 뒤의 실세들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 알에서 나온 혁거세.’ ‘한국을 낳은 100명의 위인들’ 1절 가사의 일부다. 삼국의 건국자로 알려진 이들을 각각 언급하는데, 이 때문인지 우리는 신라의 건국자를 분명히 박혁거세로 기억한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박혁거세가 자신의 세력만으로 신라를 건국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신라는 지증왕 이전까지 ‘사로국’이라고 불렸으며, 혁거세는 이 사로국의 초대 왕이다. 사로국은 혁거세의 단독 건국이라기보다는 인근의 토착 세력들과 협력해 결성된 국가라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김선주(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는 “박혁거세가 신라의 건국자로 기록돼 있지만, 경주 일대의 토착 세력인 6촌장 세력과 혁거세로 대표되는 박씨 집단, 그리고 알영 집단 등 유이민 세력의 상호 협력을 통해 건국된 나라가 사로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로국의 건국 모습이 담긴 혁거세 신화를 보면 ‘6촌장’과 ‘알영’이 누구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연합과 건국이 이뤄졌는지 그 내막을 알 수 있다. 조범환(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건국신화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신화의 내용 속에서 역사적인 실마리를 추출하는 과정”이라며 “혁거세 신화에서도 사로국 건국과 변역을 알아낼 수 있다”고 전했다.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혁거세 신화는 옛날 경주 땅의 여섯 고을로부터 시작한다. 경주에는 여섯 개의 마을과 각 마을을 다스리는 6명의 촌장이 있었다. 이들은 어느날 모여 백성들이 모두 방종하니,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으로 모시고 더 큰 나라를 만들자고 논의했다. 그리하여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니,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이상한 기운이 드리우고 있었다. 기이하게 여긴 촌장들이 우물 앞에 가 보니 그곳엔 흰 말 하나가 무릎 꿇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알이 하나 있었다. 돌연 말이 하늘로 올라가자 앞에서는 남자 아이가 부화했고, 6촌장은 이 아이에게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의 ‘혁거세(赫居世)’라는 이름을 붙이고 왕 삼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알영정’이라는 다른 우물에서는 용이 나타났고, 그 용은 열구리로 여자 아이를 낳은 후 사라졌다고 한다. 6촌장은 그 아이에게 태어난 우물의 이름을 따 ‘알영’이라는 이름을 주고, 혁거세의 배필로 삼자고 정했다. 혁거세와 알영을 키운 6촌장은 두 아이가 열세 살이 되자 각각 왕과 왕비로 추대하고 나라 이름을 ‘사로’라고 하니, 곧 우리가 아는 신라의 초기 국호다. ‘사로(斯盧)’는 학계에서 새로운 나라,

동방의 나라, 성스러운 장소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후 사로국은 점차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춘 고대 왕정 국가로 변모하며, 신라라고 새로 이름을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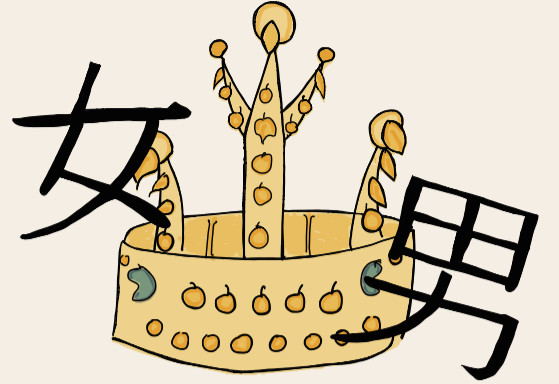
얼핏 들으면 신화의 주인공은 혁거세로 보인다. 신이한 과정을 거쳐 태어나 왕이 되는 전형적인 영웅 서사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체는 6촌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6촌장이 신화의 서사를 주도한다. 6촌장이 임금을 염원하니 혁거세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혁거세를 키운 사람도, 왕으로 추대한 사람도 6촌장이다. 이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삼국사기』(신라본기)의 ‘조선 유민이 6촌을 이뤘다’는 대목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경주 지역의 6촌장은 고조선에서 이주해 온 유이민 세력이었다는 것이다. 김재홍(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는 “해당 내용은 경주 일대에 고조선 유이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경주, 대구 등지에서 고조선의 청동기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청동기 자료가 출토됐다”고 말했다.

신화 속에서 6촌장은 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새 지도자가 필요했다. 이같은 내용을 당대 경주 지역의 상황과 연결 지어, 6촌장이 왕을 중심으로 한 집권 체제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들 세력이 고조선 일대에서 남하해 경주 지역에 자리잡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주민이 유입됐는데, 이들이 군장 중심의 질서에 적응하지 못해 익숙한 왕정 체제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군역 등을 피해 중국 지역에서 들어온 유이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왕정 국가에서 건너온 이주민 집단이 부족사회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촌장 사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화의 내용을 통해 사로국의 정치 체제를 엿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6촌장이 혁거세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사로국의 왕권과 귀족권을 상징한다는 분석이다. 사로국, 그리고 그 이후의 신라는 왕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기보다 후대 신라에 ‘6부’로 개편되는 막강한 귀족 세력과 협의를 거쳐 국가를 이끄는 체제였다고 보는 것이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나 ‘포항 냉수리 신라비’와 같은 고고학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두 비문에는 지방 백성의 재산과 관련한 분쟁을 왕과 6부 세력이 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6부 세력이 왕과 더불어 지배권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장웅(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주무관은 “냉수리 신라비에는 왕과 6부 세력을 ‘칠왕’이라는 표현으로 포괄한다”며 “화백회의와 같은 귀족 협의 기구가 발달했고, 왕이 독단적 권력을 행사했다기보다는 귀족과의 논의를 통해 국정을 이끄는 형태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6촌장은 그렇다치고, 별안간 알에서 깨어나 이들을 제치고 왕좌를 쟁한 혁거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역사가들은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혁거세도 이주민 세력이라고 이야기한다. 김선주 교수는 “혁거세가 경주 일대로 이동해왔다고 보이는 무렵에 경주에 새로운 무덤의 양식이 나타나는 등, 혁거세 세력의 출신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지만 유이민 세력임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민이었던 혁거세는 어떻게 해서 토착 세력과



연합해 임금이 될 수 있었을까. 사학계에서는 토착 세력이 혁거세의 세력을 우호적으로 여길만한 선진 기술이나 지식을 함께 가지고 이동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될 수 있었다는 시각이 다수다. 토착 세력보다 더 늦게 이주해 온 혁거세 세력은 다른 지역에서 영위하던 무기 제작 기술, 집권 체제에 대한 지식 등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혁거세가 알영과 혼인을 통해 다른 세력과 동맹을 맺었다고 보기도 한다. 알영 중심 세력과 혼인을 통한 동맹을 맺어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임금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6촌장 세력이 갖지 못한 우월한 능력과 지식을 갖춘 세력으로서 혁거세 세력이 유입됐고, 6촌장 세력의 국가 체제에 대한 필요성과 맞물려 혁거세가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혁거세 세력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이나 지식을 알영 세력이 가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알영과의 혼인이 혁거세가 왕이 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보면, 알영도 중요성을 갖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녀도 신화에서 신이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또한 『삼국사기』 등 문헌에서 혁거세와 알영을 ‘이성(二聖)’, 즉 두 명의 성인으로서 통칭하는 등, 알영에게 단순한 왕비 이상의 위상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특히 알영이 혁거세와 대등한 공동통치자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료가 있다. 『삼국사기』에는 알영이 백성들에게 누에치기를 독려했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더해 신라 왕실의 여성이 누에치기를 통한 비단 생산을 주도했다는 내용도 존재한다. 여성이 양잠업을 주도하고 독려했다는 기록은 신라의 것만 확인된다. 신라에서는 길쌈 작업을 여성의 영역으로 보고, 알영이 이 작업의 관할자로서 여성으로 대표되는 절반의 백성을 통솔할 힘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재홍 교수는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알영’, ‘아로’라는 여성의 이름에 보이는 ‘알’, ‘아’는 제사장과 관련된 이름”이라며 “신라의 왕비는 왕을 내조하는 왕비가 아니라, 제사장이나 양잠업 같은 자신의 고유한 직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혁거세 신화를 중심으로 여러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면, 사로국이 혁거세 홀로 세운 국가는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역사가들은 이같은 점을 근거로 들어 신라의 시조를 혁거세 한 사람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부우(장성중학교) 교사는 “여러 세력이 경쟁·연합·협의 등을 거쳤지만 신화 속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함축돼 있다”며 “상호 협력을 통한 건국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그림 : 박희진 기자

건강인사이드

무쇠도 간다는 20대, 허리 건강은 지금부터

오랜 시간 앉아 공부를 하다보면 찾아오는 허리 통증, 대학생에게는 꽤나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비교적 일상적인 통증이라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되지만 이러한 통증은 자주, 그리고 오래 일어날수록 ‘허리디스크’로 발전할 위험성을 가진다. 무엇보다 최근 현대인의 생활습관에 의해 허리디스크를 앓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진료 인원은 2009년 165만여 명에서 2013년 196만여 명으로 18.4%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허리디스크 요양급여비용 총액(총진료비)이 2017년 300여억 원에서 2021년 372억여 원으로 24% 늘어났다. 실제로 박상민(서울대학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의 환자가 많지 않은데, 최근 5년 새 젊은 층의 환자 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허리디스크라는 말은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니다. 흔히 허리디스크로 불리는 질환의 정식 명칭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다. 여기서 ‘추간판’을 지칭하는 의학용어가 디스크(Disc)인데, 아

마도 ‘허리디스크’라는 말은 여기에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하는 것일까.

추간판은 척추 사이에 있는 편평한 판 모양의 물렁뼈로, 척추의 운동과 충격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 추간판은 ‘수핵’으로 이뤄진 내부와 ‘섬유륜’으로 이뤄진 외부로 구성된다. ‘수핵’은 젤리와 같이 끈적끈적한 젤라틴성의 물질이다. 수핵은 방석과 같이 우리 몸의 체중을 분산하고 압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맡으며, 수분이 풍부한 상태일 때 기능이 가장 좋다. 이를 타이어처럼 동글게 감싸고 있는 것이 ‘섬유륜’이다. 다시 말해, 추간판은 찹쌀떡의 앙금 부분을 맡는 ‘수핵’과 찹쌀 반죽 부분의 ‘섬유륜’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추간판은 체중, 즉 압박력이 수핵으로 전달되면서 생기는 압력을 섬유륜의 두꺼운 섬유가 방어함으로써 수핵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압력이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찹쌀떡이 터져 앙금이 새어 나오듯, 수핵이 섬유륜을 비집고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며 발생하는 것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다.

이러한 병증은 보통 추간판의 노화로 인해 수핵의 수분량이 감소하고, 섬유륜의 탄력성이 떨어져 발생한다. 척추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성장을 마치고 그 이후부터 퇴행성 변화(노화)가 시작되는데, 이는 자동차 타이어를 오래, 자주 사용했을 때 마모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강시영(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말랑말랑하던 찹쌀떡이 말라비틀어지면 더 작아지고 쉽게 부서지듯, 추간판도 퇴행성 변화에 따라 간격이 좁아지고 충격에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젊은 층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는 원인은로는 장시간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앉아서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이 가장 긴 연령대는 남녀 모두 20대였다. 앉은 자세는 서 있는 자세와 비교했을 때 허리가 구부러진 자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앉은 자세를 오래 유지할수록 척추 골격이 구부정하게 변형된다. 척추의 형태는 본래 측면에서 봤을 때 S자에 가까워 효과적으로 체중을 분산한다. 그러나 이것이 자세 등을 이유로 등 쪽으로 구부정한 C형 후만 곡선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이러한 후

만 곡선에 대해 이정희(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교수는 “정상적인 하중 전달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취약한 뒤쪽으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기 쉽게 만든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다리를 꼬고,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될수록 추간판의 노화가 촉진된다. 따라서 평소의 자세에 앉을 때 깊숙이 앉아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되도록 허리를 똑바로 펴고 요추가 굽은 활처럼 펴지는 전만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전만의 자세란 등은 뒤로, 허리는 앞으로 온 모양을 뜻한다. 이에 더해 오성원(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것은 피하고, 1시간마다 1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통해 추간판을 휴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연예인만 기다리는 대학축제, 진부하다

근 3년 만에 열린 3일간의 대동제가 어찌저찌 막을 내렸다.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각종 논란에 대응하는 총학생회의 입장문부터 재학생존을 둘러싼 소음 등,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어쨌든 대동제는 끝을 맺었다. 축제 기간 내내 섭외 가수 명단과 재학생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본질이 다르지 않다.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는 연예인 축하공연이 대학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는 공동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본교를 비롯한 대다수의 대학축제에서 학생들 사이의 가장 큰 이야기거리라는 '어떤 가수를 섭외했느냐'이다. 대학축제 기간과 맞물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학별 초청 가수 명단을 공유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결국 무대에 서는 가수의 명단만 다를 뿐, 대학의 특성이 드러나는 축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대학의 사례만 살펴봐도 축제에 사용되는 최종 예산 중 60% 이상의 비용이 섭외 가수 3팀에 투입됐다. 이는 재학생들이 납부한 총학생회비는 물론, 대학본부에서 지원하는 교비가 합쳐진 금액의 3분의 2 이상이 약 2시간 30분만에 소요됐다는 말이다.

이번에 운영된 '재학생존' 역시 이 2시간 30분을 위해 기획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재학생존은 교내 구성원에게 무대 관람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 시도됐다는 점에서 치하할 만하다. 다만, 해당 구역이 연예인 축하공연 관람을 과열시킨 데에 한몫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학생존의 입장권 거래를 시도하는 글이 셀 수 없이 업로드됐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본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학생복지위원회와 SNS와 학내 커뮤니티 등에만 공지된 재학생존 안내를 보며 소외감을 느낀 학우들도 존재했다. 게다가 이번 재학생존은 엄밀히 말해 총학생회비를 납입한 학생들만 신청 가능한 '총학생회비 납부자존'이었다.

이렇게 연예인 축하공연에 많은 이목이 쏠린 대동제는 과연 대학이 지향해야 하는 축제의 모습을 띠고 있을까. 아니, 질문을 바꿔보자. 무대를 하는 가수의 명단에 따라 방문하는 대학이 달라지는 작금의 상황은 교내 구성원을 단합시키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대학축제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연예인을 직접 보고, 그 무대를 학내 구성원과 몸으로 부딪치며 즐기는 것만으로 대학생활의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축제의 모습은 가수의 공연으로만 기억되는 안 된다. 대학축제는 학과와 학번, 나이 등이 다른 학생들을 한곳에 모이게 하고, 교수와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며 단합시키는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대학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타학교, 이전의 관습 등을 그대로 베껴놓은 게으른 기획에 불과하다. '축제란'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일컫는다. 대학별로 무엇을 축하해야 하는지, 나아가 대학축제가 가질 수 있는 가치와 지향점은 무엇인지 축제를 기획하는 각 대학의 관계자가 숙고해주기를 바라본다.

한혜정 편집국장



기자수첩

드러나는 얼굴, 외면받는 이들

지난 26일,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완전히 해제됐다. 정확히는 실외 마스크 의무는 5월에 이미 해제됐다. 하지만 야구장이나 콘서트장을 비롯한 50인 이상의 집회·행사는 밀집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뒀는데 이를 모두 폐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절정에 이르렀다. 실제로 내년 상반기에는 해제가 예상된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탈코로나'는 실현 가능한 소망으로 성큼 다가왔다.

실제로 여러 지표가 탈코로나를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10월 6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2,298명인데, 이는 일일 확진자가 최대 18만 명대를 기록하던 8월 3주차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최근 7일간

일평균 사망자도 29명으로, 최고점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더욱이 젊은 층의 경우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명률은 0%에 수렴하고, OECD 주요국 대다수는 진작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는 점에서 방역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는 몸집을 키워나갔다.

그럼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명백하다는 점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지난 2월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KF94 마스크 수준의 N95 또는 KN95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했을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83%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마저 마스크를 벗을 경우, 코로나19 재유행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이다. 당장 일용직 종사자는 노

동시장의 경직으로 생계가 위협당할 수도 있으며, 무료 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끼니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보 습득이 느린 사회적 소외계층은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 또한 2년이 넘는 마스크 착용이 지겹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생각한다면 모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쉽사리 상상되지 않는다. 국가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결정하기 전, 고작 마스크 '하나'에 많은 이들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지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정책이 다 안 그렇잖나. 특히 방역정책만큼은 누구 한 명 소외되는 이 없이 모든 국민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송성욱 기자 sw911@hansung.ac.kr

낙산에 올라

우리가 알아야 할 디스플레이 이야기

당신은 오늘 몇 개의 디스플레이(display)를 사용했는가? 핸드폰, 컴퓨터, TV, ATM, 키오스크 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제품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디스플레이는 가정, 학교, 공공기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널리 사용되는 만큼 수명을 다한 폐(廢)디스플레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에는 약 475만 대 이상의 폐디스플레이가 발생했으며 그 중 폐LCD(Liquid Crystal Display)가 약 142만대로 전체 폐디스플레이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LCD 제품이 국내에 보급된 시기와 제품의 수명을 고려하면 향후 전체 폐디스플레이 대비 폐LCD의 비중은 8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LCD 제품을 구성하는 패널에 부가가치가 높은 LCD 유리라 희토류 금속인 인듐이 다량 포함되어 있지만, 재활용 기술 부족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잦다. 특히 LCD 유리의 경우 폐LCD 제품에서 연간 약 8천 톤 이상, 제조 공정상에 발생하는 스크랩으로 약 13만 톤의 폐유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폐LCD의 재활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LCD를 구성하는 부품 중 백라이트 유닛에 포함되는 CCFL(Cold Cathode Fluorescent Lamp)은 다량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국내 재활용 업체의 작업환경을 고려했을 때 작업자가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에 노출되기 쉽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CCFL을 처리하는 공정에 인력 투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 유다. 이를 통해 작업장 내의 유해 물질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방지하면서 폐LCD재활용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될 수 있다.

폐디스플레이의 재활용에는 제조사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스크랩에서 비롯된 폐유리의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도 하락할 것이다. 이처럼 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경영과 자원순환에 동참한다면 디스플레이 재활용률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영(기계전자 4)

의화정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매칠 전, 대기업 임원을 만났다. 마침 대졸 신입 채용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해당 기업의 임원에게 요즘 대학생 중엔 정말 책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뉴스와 달리 신입사원 면접을 보면 대다수의 지원자가 기계적이고 정형화된 답변만 늘어놓는다는 것이다.

임원은 대학에서라도 제발 주입식 교육을 하지 말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서라도 많이 권장해달라는 읍소 아닌 읍소를 해왔다. 코로나가 예상과 달리 장기간 이어지며 대학생의 학업 역량 그리고 졸업생의 문해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던 요즘, 임원의 읍소가 결코 가볍게만 들리지 않았다.

지난 달, 국회 교육위원회가 내놓은 결과에 의하면 지역거점 국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의 1인당 평균 도서 대출은 3.25권으로 나타났다. 2017년 6.35권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이며 4년 연속 그 숫자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의 일상화, 영상 콘텐츠에 친숙한 학생들의 독서기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물론, 과거에도 책을 많이 읽고 권하던 분위기는 아니었다. 20년도 훨씬 더 넓은 2001년 모 방송사는 유채색 등을 MC로 내세워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전국적인 독서 열풍을 조성했다. 당시 제작진은 주입식 교육과 독서 기피 현상의 심화 등을 거론하며 독서를 권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도 숏폼이 대세가 된 지금, 그때처럼 다시 한 번 독서를 권하면 고리타분하다는 지적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다만, 영상이 편해진 세상에서 문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인 세상이 된 것도 확실하다. 미디어콘텐츠 기업들이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독서량을 묻는 역설적인 현상도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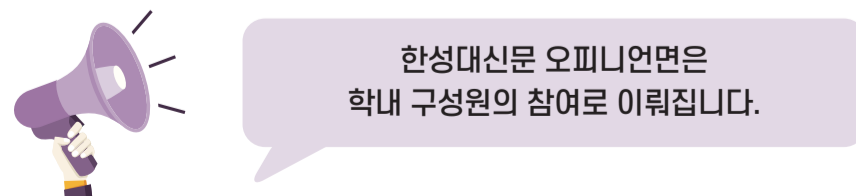
로봇(AI)은 점점 인간을 지향하고 있는데 인간은 영상에 순응되어 점점 로봇이 되어가는 아이러니한 풍토를 보이고 있다. 정형화된 로봇이 된 자신을 탈바꿈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독서이다.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는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슬로건일지 모른다.

권상집(사회과학부) 교수



동정란

신재흠(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가 2021년 발간한 「서양교육변천사 탐구」가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박선옥 편집국장 한혜정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제37회					
	한	성	문	학	상	
	현	상	공	모		

당신의 글이 작품으로 변하는 순간

모집기간

2022년 9월 19일(월)
~ 10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제출형식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제출방법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e-mail로만 접수 가능)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발 표

한성대신문 584호 (12월 5일 발행)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 원 및 상패 (가작 30만 원)
시 - 40만 원 및 상패 (가작 20만 원)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10pt / 당선 80pt (가작 60pt)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한성대신문